

|                                                                                   |       |                                                 |                     |
|-----------------------------------------------------------------------------------|-------|-------------------------------------------------|---------------------|
|  |       | <b>보도자료</b>                                     |                     |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       | 보도                                              | 2021년 7월 21일 18시 이후 |
| 담당부서                                                                              | 국제금융실 | 실장 신삼봉 (051-631-0291)<br>매니저 권태형 (051-631-0294) |                     |

## 부산시 · 금융감독원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제금융허브로서 부산의 기회’ 투자설명회(IR) 공동 개최

- 7월 21일 부산광역시, 금융감독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유럽 소재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부산국제금융중심지 홍보를 위한 비대면 투자설명회(IR)를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 IR은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영상 방영, Z/Yen 마이넬리 회장의 인사말,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과 양지영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팀장의 주제 발표, 질의 및 응답의 순서로 약 1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유럽 내 25개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체에서 총 40여명이 참여하였다.
- 부산광역시 박성훈 경제특별보좌관은 ‘국제금융허브로서 부산의 기회’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 EXPO 2030 유치로 부산을 글로벌 물류 중심지 및 그린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킬 비전 및 실행방안과 이와 관련된 금융부문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 금융감독원 양지영 팀장은 ‘아시아의 국제금융허브’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경쟁력과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금융감독당국의 제도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 코로나 사태로 홍보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부산시, 금융감독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민관이 함께 해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공동IR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내외 금융투자환경에서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새로운 기회와 관련 정보를 알리는 유익한 기회로 평가된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오는 9월 비대면 IR를 추가로 개최하여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산금융중심지를 홍보할 예정이다.